

KBS 대기획

'트랜스휴먼-초인류가 온다' 3부작

글. 나지선 KBS 인프라전략국 인프라구축부 팀장



과학과 기술은 우리의 삶을 보다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인가,
신의 영역인 생명 진화의 선을 넘는 것인가, 초인류가 온다.

경계에 선 인간, 기술이 던진 실존적 숙제

KBS 대기획 「트랜스휴먼」 3부작을 시청한 후, 단순한 흥미나 지적 호기심을 넘어 인간 존재의 미래에 대한 깊은 경외감과 동시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다. 이 다큐멘터리는 더 이상 SF가 아닌, 이미 현실이 된 첨단 과학기술의 현장을 가감 없이 보여주며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을 시청자의 삶 한가운데로 던졌다.

배우 한효주의 차분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내레이션은 자칫 차가운 기술 보고서가 될 수 있었던 프로그램에 인간 존엄성이라는 시선을 끝까지 부여하며, 기술과 인간 사이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

1부 사이보그

1부 「사이보그」는 인체공학 기술을 통해 기계와 인간이 융합되는 신체 확장의 현재를 보여주었다. 이 회차를 통해 기술이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는 가장 근본적이고 숭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사고로 팔을 잃었지만 생체공학 의수를 통해 이전보다 더 섬세한 연주를 가능하게 한 드러머의 사례는 단순한 ‘회복’을 넘어 기능적 초월이 이미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사고 이전의 자신의 팔로는 만들 수 없던 리듬을 구현해내는 모습을 보며, 드러머 스스로도 자신의 능력이 증강되었다고 느낀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다. 또한 안테나 센서를 통해 색을 ‘느끼는’ 장면에서는 인간의 감각이 기계의 도움으로 확장되고 진화하는 결정적 순간을 목격한 듯한 감정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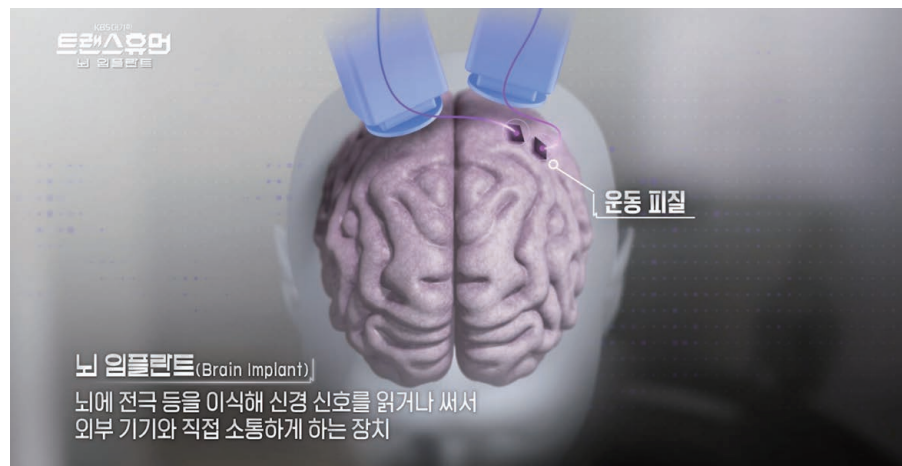
* 사이배슬론(영어: Cybathlon)은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ETH Zürich)가 주최하는 신체 일부가 불편한 장애인들이 로봇과 같은 생체 공학 보조장치(예를 들어 착용 컴퓨터)를 통해 경기를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회이다. 사이배슬론이라는 단어는 인조인간을 뜻하는 '사이보그(cyborg)'와 경기를 뜻하는 라틴어 '애슬론(athlon)'이 합쳐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 절단 사고를 겪은 부상자들에게 의수와 의족이 단순한 보조 기구를 넘어 삶의 의지와 존엄을 되돌려주는 도구가 되는 장면은 깊은 울림을 남겼다. “인간은 더 이상 생물학적 몸에 머물지 않고, 회복과 생명 연장, 나아가 능력 증강을 위해 기계를 신체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코멘트가 강하게 와닿았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하며, 오랫동안 인류가 마주해 온 물리적 한계를 해결할 가능성으로 다가왔다. 기술 혁신이 인류 전체의 잠재력을 폭발시키고 문명을 다음 단계로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1부는 트랜스휴먼 시대가 인류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강하게 각인시켰다.

2부
뇌 임플란트 -
정신의 주권을
향한 침투,
가장 위험한
줄다기

2부 「뇌 임플란트(BCI)」는 인간의 마지막 성역이라 불리는 정신과 의식의 영역에 기술이 개입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며, 경이로움과 불안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BCI 기술이 사지마비 환자에게 ‘생각의 자유’를 되돌려주는 과정을 통해, 기술이 인간의 삶의 질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실감하게 됐다.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를 포함한 다양한 BCI 기술은 영화 속 상상이 아니라 이미 구현 단계에 접어든 현실임을 증명했다. 뇌에 칩을 이식해 뇌 신호를 무선으로 컴퓨터에 연결하고, 생각만으로 기기를 조작하는 장면은 충격에 가까웠다. 뇌가 곧 인터페이스가 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실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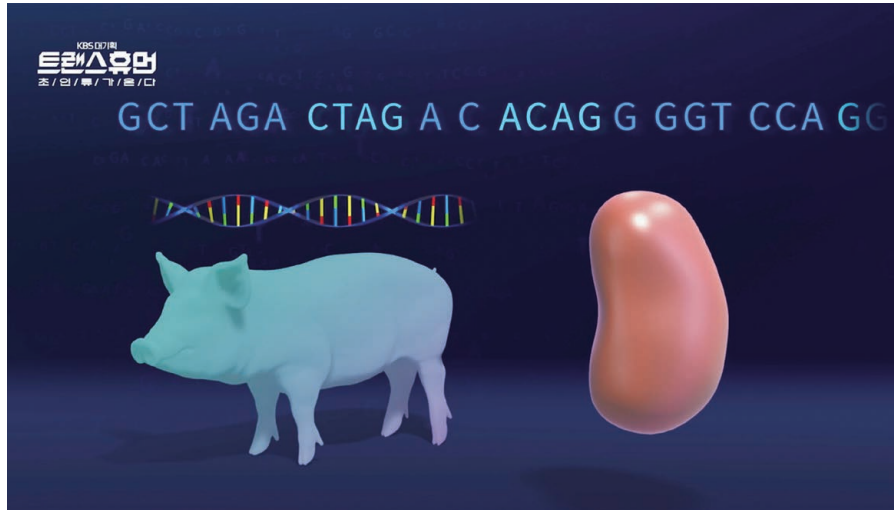
특히 엔비디아와 싱크론이 개발한 AI와 BCI의 결합 기술은 기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사지마비 환자가 착용한 글래스가 주변 상황을 분석해 가능한 행동을 제안하고, 환자는 뇌 신호로 이를 선택해 실행하는 과정은 자립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었다. 이는 환자 개인뿐 아니라 오랜 시간 돌봄을 감당해 온 보호자들에게도 해방에 가까운 희망을 제시했다.

우울증 환자에게 정밀한 뇌 자극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게 하거나, 광유전학을 통해 사라진 기억을 되살리는 기술은 감정과 기억마저 기술로 조절할 수 있는 미래를 예고했다. 이러한 발전은 인간이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기대를 키웠다.

그러나 동시에, 뇌 임플란트 기술이 던지는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뇌 활동과 감정, 기억까지 기술이 개입하게 될 때 자유 의지와 '진정한 나'의 영역은 어디까지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았다. 기술이 축복이 될 수 있음은 분명했지만, 뇌 정보라는 인간의 가장 내밀한 영역이 오용되거나 상품화될 가능성 앞에서 불안 또한 커졌다. 2부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간 정신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윤리적 논의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3부
유전자 혁명 -
생명의 설계도를
편집하는 권능,
윤리적 책임의 무게

마지막 3부 「유전자 혁명」은 CRISPR 유전자 가위 기술을 중심으로 생명의 근원을 다루며 질문의 깊이를 극대화했다. 난치병 유전자를 제거해 고통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다는 가능성은 경이로웠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분명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장수 유전자 연구를 통해 노화의 속도를 조절하려는 시도는 인간 생명의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특히 기술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이 변화하는 사례를 통해 현실성을 확인시켜 준 점이 인상 깊었다. 말기 질환 환자가 유전자 교정 기술로 삶을 되찾은 이야기와 돼지 장기 이식을 통해 인간의 생존 가능성을 넓혀가는 임상 사례는 과학이 더 이상 공상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옥스퍼드대 실천윤리학 석좌교수인 줄리안 사블레스쿠 교수의 인터뷰 내용 중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을 유전적으로 수정하는 능력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내용은 설레게도 만들었지만 “누구나 다 이상적인 유전적 성질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깔린 질문이 떠오르기도 했다.



**총평: 인간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기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선택**

다큐 속 내레이션은 복잡한 과학적 내용을 차분히 풀어내며, “우리는 이제 진화의 방향과 속도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시대에 서 있다”는 메시지를 깊이 각인시켰다. 이 문장은 시청이 끝난 뒤에도 오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 3부작을 통해 가장 강하게 남은 감정은 기술 발전에 대한 경외와 그에 따르는 책임의 무게였다. 유전자 혁명은 분명 희망적이지만, 동시에 인간 존재의 정체성과 윤리적 경계를 피할 수 없게 만든다.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명확한 답 없이 숙제로 남았다.

KBS 대기획 「트랜스휴먼」 3부작을 통해 트랜스휴먼 시대가 이미 현실 속에 들어와 있음을 분명히 체감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기술의 발전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그리기보다, 인간의 삶을 더 존엄하고 자유롭게 만들 가능성을 차분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사이보그 기술은 신체적 한계를 극복해 다시 삶의 주체로 서게 했고, 뇌 임플란트 기술은 생각과 의사 표현의 자유를 되찾아주었으며, 유전자 혁명은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인류를 해방할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이 모든 기술은 공통으로 인간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도구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

물론 기술이 발전할수록 윤리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다큐멘터리가 전한 핵심 메시지는 기술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기술을 어떻게 선택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가능성에 있었다. 우리는 기술의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그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임을 이 프로그램은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트랜스휴먼」은 인간의 자유 의지와 공감 능력, 그리고 존엄성이 여전히 미래 사회의 중심 가치로 남아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인간적인 판단과 연대의 힘이 함께할 때, 트랜스휴먼 시대는 위기가 아닌 더 나은 삶을 향한 진화의 과정이 될 수 있다. 인간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트랜스휴먼」은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다큐멘터리였다고 생각한다. **박정민**